



# 역대급 블록버스터 시리즈 투 톱의 귀환

## 쥬라기 월드 VS 미션 임파서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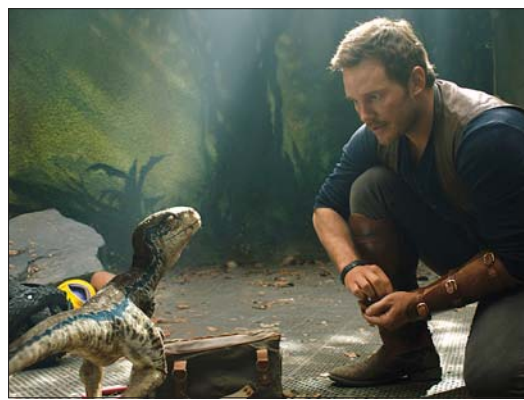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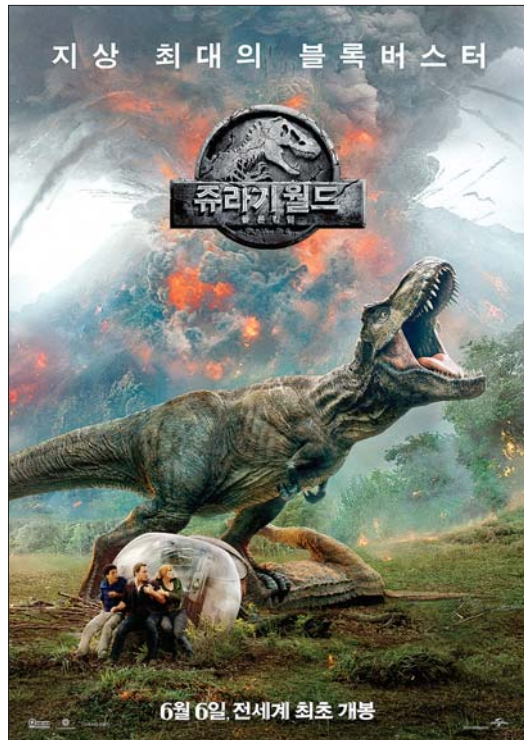
본격적인 여름 극장가의 포문이 열렸다. 그 중 올 여름을 책임질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속편 6월 6일 개봉작 '쥬라기 월드: 폴른 킹덤'과 7월말을 시원하게 질주할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이 출격 준비에 나섰다.

6월 6일 현충일 개봉을 앞둔 영화 '쥬라기 월드: 폴른 킹덤'은 폐쇄된 '쥬라기 월드'에 남겨진 공룡들이 화산 폭발로 인해 멸종 위기에 처하고, 존재해선 안 될 진화 그 이상의 위험적 공룡들까지 세상 밖으로 출몰하는 대위기를 그린 지상 최대의 블록버스터다.

'쥬라기 월드: 폴른 킹덤'은 3부작 '쥬라기 월드' 시리즈의 두 번째 작품으로 전편 '쥬라기 월드' (2015)는 550만 이상의 관객을 동원한 바 있다. 올해 '어벤저스: 인피니티 워'에 이어 흥행 연타를 예고하는 크리스 프랫을 비롯, 전편에 이어 컴백한 브라이스 달라스 하워드와 '토르: 라그나로크'의 제프 골드브럼 등 쟁쟁한 캐스팅이 완성됐다. 더불어 더욱 진화된 공룡들이 등장, 3D 프린터를 활용한 애니메트로닉스 기술로 놀라도록 생생한 비주얼을 기대케 한다.

특히 '쥬라기 월드: 폴른 킹덤'은 4DX와 최적의 조합을 통해 환상적인 공룡의 세계를 보여줄 것을 예고했다.

'쥬라기 월드: 폴른 킹덤' 4DX는 공룡의 육중한 발걸음에 맞춘 진동 효과와 영화 속 다양한 환경에 맞춘 향기와 열풍 효과, 공룡들의 움직임에 맞춘 디테일한 캐릭터 모션 등 완성도 높은 4DX 효과로 테마파크 이상의 재미를 선사하며, 관객들의 몰입도를 한층 끌어올릴 예정이다. 이러한 기대감을 입증하듯 개봉일인 현충일 4DX 예매 폭주가 이어지며 관객 몰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전편을 뛰어넘는 역대급 4DX '공룡' 신드롬을 일으킬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어 7월 개봉하는 최고의 기대작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은 최고 스파이 요원 에단 헛트(톰 크루즈)와 IMF팀이 행한 모든 선의의 선택이 최악의 결과로 돌아오면서 피할 수 없는 미션을 끝내야만



하는 액션 블록버스터다.

반박불가 전 세계 최고의 액션 블록버스터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의 6번째 작품으로 개봉 확정과 동시에 폭발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리즈의 4편 '미션 임파서블: 고스트볼'

### 쥬라기 월드: 폴른 킹덤

진화 그 이상의 공룡 출몰 대위기 그려내 4DX와 최적의 조합... 한층 몰입도 높여

###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

톰 크루즈, 헬기 조종 등 리얼 액션 담아 스파이 기관 IMF 팀원들 돌아와 팬 환호

(2011)은 757만 이상, 전편 '미션 임파서블: 로그네이션' (2015)은 612만 이상의 관객을 동원해 시리즈 국내 누적 2000만 명 이상의 관객수를 기록했다.

이번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은 전편 '미션 임파서블: 로그네이션'의 연출을 맡은 크리스토퍼 맥쿼리 감독이 다시 한 번 메가폰을 잡아 더욱 업그레이드된 면모를 기대케 한다.

지구상 최고의 액션 배우 톰 크루즈는 어김없이 전 세계 최고의 스파이 '에단 헛트' 역을 맡아 직접 헬기를 조종한 것은 물론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발목 부상 투혼까지 리얼 액션을 펼쳤으며, '슈퍼맨' 헨리 카빌이 에단 헛트의 라이벌로 출연해 박빙의 액션 대결을 기대케 한다. 또한 전편에서 데뷔해 가장 강력한 인상을 남긴 스파이 '일사' 역의 레베카 퍼거슨이 동료로 컴백하며, 스파이 기관 IMF의 팀원들도 돌아와 시리즈 팬들이 반가움을 표하고 있다. '블랙 팬서'의 안젤라 바셋, 라이징 스타 바네사 커비 등 카리스마 넘치는 여성 배우들의 대거 합류 역시 주목 포인트다.

업그레이드된 액션 시퀀스와 예측 불가능한 스토리, 치밀한 캐릭터 케미스트리와 팀워크까지,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은 대한민국 관객들이 여름을 기다리는 단연 가장 중요한 이유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oo.co.kr  
사진/UPI·롯데엔터테인먼트



## 시와 사진이 있는 아침

### 물망초

힘을 내 힘을 내어 소리치자 친구여 그대여, 함께라면 고통도 희망이 되리니

/고홍근 작

## '독전' 거침없는 흥행독주... 韓 300만 최단 기록

개봉 12일차에 누적 300만 돌파 박스오피스 12일 연속 1위 기록

아시아를 지배하는 유령 마약 조직의 실체를 두고 펼쳐지는 독한 자들의 전쟁을 그린 범죄극 '독전'이 개봉 12일 차에 손익분기점을 뛰어 넘는 누적 관객수 300만 명을 돌파해 이목을 집중시킨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2일 오후 5시 기준)에 따르면 '독전'은 개봉 12일째 누적 관객수 300만 1539명을 기록, 100만, 200만 돌파부터 300만 돌파까지 2018년 한국영화 최단 기록을 경신하며 올해 한국영화의 흥행 역사를 새로이 쓰



적으로, 극장가의 적수 없는 흥행 강자임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행보다. 여기에 경쟁작인 마블 영화 '데드풀2'와 '스타워

즈' 시리즈의 스핀오프 작품인 '한 솔로: 스타워즈 스토리'의 공세에도 개봉 이후 12일 연속 부동의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하고 있어 더욱 눈길을 끈다.

또한, '독전'의 흥행속도는 687만 명을 동원하며 2017년 한국 청불 영화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한 '범죄도시'와 동일할 뿐만 아니라, 한국 범죄 장르 대표작 '신세계'의 속 도보다 무려 12일이 나 빠른 성적으로, 극장가의 적수 없는 흥행 강자임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행보다. 여기에 경쟁작인 마블 영화 '데드풀2'와 '스타워

/신원선 기자

**오늘의 날씨**

6월 4일  
음력: 4월 21일

수도권 날씨  
**27 ~ 18°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 05:12 | 해질 / 19:49

연천 15/27, 동두천 16/27, 가평 14/27, 파주 15/26, 서울 18/27, 양평 16/27, 인천 18/23, 수원 17/26, 용인 17/26, 평택 16/27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스포츠 한줄 News

- ▲ 2018 러시아월드컵 국가대표팀이 담금질을 위해 3일 오스트리아로 출발했다. 신태용 감독과 대표팀 23명은 전지훈련 캠프지에서 두 차례 평가전을 치러 실전 경기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각오다.
- ▲ 로스앤젤레스 다저스가 좌완 P.J.콜론을 영입, 40인 로스터에 포함하기 위해 사타구니 부상으로 재활 중인 류현진을 10일짜리 DL에서 60일짜리 DL로 이동시켰다.

- ▲ 인도가 2026년 하계유스올림픽, 2030년 아시안게임, 2032년 하계올림픽 유치의향을 제출할 계획이다.
- ▲ 추신수(텍사스 레인저스)가 2018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전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출전해 5타수 1안타를 기록, 19경기 연속 출루를 이어갔다.
- ▲ 태권도 남자 58kg급 올림픽랭킹 1위 김태훈이 2018 세계태권도연맹(WT) 월드태권도그랑프리 시리즈 1차대회 이틀째 남자 58kg급 준결승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 ▲ 오승환(토론토 블루제이스)이 이번 시즌 첫 패전투수가 됐다. 그는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와외의 방문경기에 출전해 ⅓이닝 3실점을 기록했으며, 팀은 4-7로 패했다.